

# 진시황의 삶을 통해 본 교육적 의미

金德三·李庚子\*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진시황의 삶과 평가
3. 진시황의 교육적 영향
4. 反面教師로서의 진시황
5.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역사는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하게 엮힌 사건 중에 하나가 선택되고, 여기에 각자의 프레임을 근거로 다시 보기가 이루어져 새롭게 탄생한다. 그러므로 시대와 상황에 맞게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늘 요청된다. 인물에 대한 평가도 예외일 수 없다. 한 인물에 대한 평가도 시대와 상황에 의해 좌우된다. 본고에서 다룬 秦始皇이란 인물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진시황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폭군과 잔인하고 냉혹한 이미지가 진시황에게는 투영된다. 최근 이러한 관점을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張藝謨(1950~) 감독이 만든 '英雄'이란 영화에서는 진시황을 새롭게 조명했다. 즉, 四分五裂된 혼란을 극복하고 천하의 통일을 염원하는 인물,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쟁의 고통과 피해를 제거하려는 인

\* 대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교수(주저자 konglai@naver.com)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교신저자 klsarang01@hanmail.net)

물, 그러나 그 뜻을 아무도 몰라주고 오히려 진시황을 암살하러 온 무명씨가 진시황을 이해하게 되는, 외로운 인물로 묘사되었다. 물론 영화가 만들어진 당시 중국의 상황, 특히 胡錦濤(1942~) 정권이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국내의 문제로 분열의 조짐도 내비춰진 상황 등과 결부시켜 생각한다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라든지 '주변부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영화 속 행간의 의미는 진시황을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그려낸 의도를 짐작하게 한다.

반면, 臺灣大學의 사학과 교수인 呂世浩가 쓴 《진시황》은 진시황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한 점이 엿보인다.<sup>1)</sup> 이 책에서는 단순히 진시황을 폭군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시황의 장점과 단점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진시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고, 그의 폭군적 이미지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아마도 진시황을 의도적으로 좋게 본다 하여도 그와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평가한 진시황 사후의 기록이 부정적 관점이 절대적이고, 후세의 사람들이 그 기록의 영향 속에서 진시황을 평가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긍정과 부정의 판단은 가치판단으로 그 기준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 중에는 그가 통솔자로서 이웃을 침략하여 통일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피해자의 입장에서 기술된 것도 있고,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를 물리치고 들어선 한왕조에서 이루어진 것도 많다. 결론적으로 진시황에 대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보다 피해를 입거나 그를 부정함으로 자신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일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과장되거나 감정적 요소가 가미되어 전해지면서 이러한 관점을 확대해석하는 면도 있다.

황제로서 통일이후에 보인 그의 행적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 많다.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사실일까? 라는 의구심과 난세에서 어떠한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당시 상황에서 천하통일을 이룬 황제로서 어느 정도까지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고 이것이 얼마나 도덕적 보편성을 현실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등을 고려한다면, 어느 선까지 그를 비판해야 할

1) 뤼스하오, 《진시황: 신화가 된 역사 그리고 진실》(서울: 지식갤러리), 2015.

지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기존의 가치 판단을 가급적 배제하고, 진시황에 대한 역사적 행위와 업적을 근거로 진시황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sup>2)</sup> 나아가 보다 구체적 시각을 담보하기 위해 진시황이 이룬 업적을 교육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黃濟는 《중국 전통교육철학의 이해》에서 중국 전통교육철학사상에 대한 연구를 분석적 태도, 평등의 원칙, 적극적인 재고찰에 주의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sup>3)</sup> 진시황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그 동안 진시황의 업적은 폭정과 폭압으로 얼룩져있지만, 이를 다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재평가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 분석적 태도, 평등의 원칙, 적극적인 재고찰 등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적 태도에서는 진시황에 대하여 감정적인 평가와 이에 기초한 자료를 자제하고, 정황과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평등의 원칙에서는 다른 황제나 개국 황제 등과의 비교를 통해 진시황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적극적인 재고찰은 이 연구의 가장 창조적인 측면이자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통일을 이루고 폭군의 이미지로 점철된 존재를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그 시대와 위치에서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용납 가능할까 하는 재고찰부터 그가 오

2)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새로 발견된 문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진나라의 역사와 관련하여 《수호지진간》, 《이야진간》, 《악록진간》 등이 발견되었고, 《북경대학장서한족서》「조정서」에는 《사기》에서 전하는 내용과 다른 점이 많이 발견된다.(김경호, <秦始皇帝의 死亡 및 秦의 滅亡과 관련한 또 다른 문헌 —北京大學藏西漢竹書(參) 趙正書譯註考—>, 《中國古中世史研究》第46輯, 2017, 145-178쪽.) 다른 점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에서 설명하겠지만 중국에서의 새로운 문헌에 대한 연구도 고증학적 연구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이를 토대로 한 사변적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잠시 미루고 있다. 사변적 연구는 명확한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초 자료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에 대한 진위와 가치, 기존자료와 비교해 어느 것이 옳은 가 등의 과제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현전하는 《노자》본, 마왕퇴 백서본, 광점 죽간본의 다른 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를 노자 사상에 어떻게 접목하는지의 문제는 아직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치 현대의 금고문경학 논쟁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존의 자료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도 옳지 않다. 특히 앞서 언급한 이유처럼 진시황의 경우에는 더 그렇다. 본문에서는 논의의 집중을 위해 비교보다 饒宗頤의 ‘三重證據法’이나, 합리적 추론, 사회학적 상상의 도움을 빌어 진시황과 그의 업적을 교육적 각도에서 조명하겠다.

3) 黃濟 저, 김귀성·이경자 역, 《중국 전통교육철학의 이해》(서울: 원미사), 2013, 455-459쪽.

늘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교훈을 줄 수 있을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성찰해 볼 것이다. 선행연구를 보면, 국내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진시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중국의 경우 교육사 등에서는 진시황이 교육에 미친 부정적 측면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관련 서적에는 진시황의 폭정이 교육에 미친 악영향을 강조하고 있다.<sup>4)</sup> 혹은 조금 우호적인 측면에서 문교정책사상의 발전을 이루었다거나, 교화원칙을 확립하고, 법가의 선입견에 구속되지 않고 다양한 도덕행위 규범을 제정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진시황이 통일을 이루고 통치한 14년의 짧은 기간 동안 개혁을 완성하고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학문과 사상을 탄압하고, 사학과 교육 발전을 저해했지만 이러한 것이 교육에 미친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이러한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향후, 본 연구가 진시황 연구와 중국 교육 연구의 다양성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

## 2. 진시황의 삶과 평가

### 1) 진시황의 삶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국가이자 다민족 통일체이면서 전제주의 중앙집권제 국가를 세운 진시황은 조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子楚의 아들 嬴政으로 조나라에서 태어났다. 자초는 진으로 돌아와 莊襄王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자, 영정이 13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다. 그러나 바로 정권을 잡을 수는 없었다.

진시황은 기원전 238년에 상국으로 있던 呂不韋를 물리치고, 환관 嫪毐를

4) 王炳照, 閻國華 主編, 《中國教育思想通史》 第2卷(長沙: 湖南教育出版社, 1994, 1-13쪽; 毛禮銳, 沈灌群 主編, 《中國教育通史》 第2卷(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6, 1-15쪽 참조.

제거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물론 진시황의 성장에는 여불위의 도움도 있었다. 예를 들어 불모로 잡혀간 진시황의 아버지 장양왕을 돕고 그를 왕으로 만든 것이나, 진의 발전을 위해 애쓴 점, 그리고 그가 주도해서 편찬한 《呂氏春秋》 등을 통해서 진나라의 발전을 염원했다는 진정성도 알 수 있다. 여불위는 자초가 왕위에 오르자 丞相이 되어 文信侯에 봉해진다. 진시황의 재위 기간에는 상국으로 있으면서 진시황의 仲父로 대우를 받는다.

통일을 이룬 진시황은 39세에 자신의 칭호를 만들어 ‘황제’라고 칭했는데, 이는 태황에서 泰를 떼어내고 ‘皇’을 취하고, 三皇五帝의 五帝에서 ‘帝’를 취하여 ‘황제’라는 명칭을 만들었다.<sup>5)</sup> 그리고 37년 동안 왕위에 머물렀다. 진시황이 통일을 이룬 것은 당시 백성들의 염원에 부합하고, 앞으로의 발전에 토대를 쌓는 중요한 일이었다.

천하를 통일하고 不老長生을 꿈꾸었던 진시황은 기원전 210년 7월, 5차 순사에서 沙丘인 지금의 河北省에서 사망한다. 당시 그와 함께한 환관 趙高(?~기원전 207년), 승상 李斯(?~기원전 208년), 진시황의 작은 아들 胡亥(기원전 230~기원전 207)는 유서를 조작하여 호해가 2세 황제가 되도록 하고, 큰 아들 扶蘇(?~기원전 210)는 물론이고, 충신 蒙恬(?~기원전 210년), 蒙毅(?~?) 형제를 제거한다. 교활한 환관, 권력과 출세에 눈이 먼 이사, 황제만 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한 호해는 진시황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진시황의 업적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결국 조고가 2세를 죽이고 자영을 황제자리에 앉혔으나 즉위 1개월 만에 진은 멸망하였다.<sup>6)</sup>

5) 혹은 삼황오제의 삼황과 오제에서 각각 한 글자씩 취하여 황제라고 칭하였다는 설도 있다.

6) 다음의 원문에 나오지만 이것은 《史記·秦本紀》에 의거한 기록이다. 반면 <趙正書>를 보면 내용상 다른 점이 발견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내용처럼 2세 호해 황제의 즉위는 장자에게 내린 조서의 위조와 그에 따른 부소의 죽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5차 순행에 동행한 李斯와 馮去疾의 진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2세 호해의 계위(繼位)는 진시황이 죽기 전에 인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김경호, <秦 始皇帝의 死亡 및 秦의 滅亡과 관련된 또 다른 문헌 —北京大學藏西漢竹書(參) 趙正書譯註考—>, 《中國古中世史研究》, 第46輯, 2017, 173쪽) 중요한 문제이다. 《史記》는 진시황 사후 400여 년이 지난 뒤 진의 역사와 관련된 여러 판본의 저작 가운데 일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趙正書>와 《史記》의 기록 가운데 어느 것이 맞을지 현재로서 판단하기 쉽지 않다. 또한 죽기 전에 인가를 받았다고 했지만, 장자를 두고 계위하는 것

진왕 정은 재위 26년에 비로소 천하를 통일하여 36개의 군을 설치하고 스스로 시황제라 하였다. 시황제가 51세에 승하하자 아들 호해가 제위에 올랐다. 2세 황제 3년에 제후들이 잇달아 진왕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조고가 2세를 죽이고 子嬰을 내세웠다. 자연이 재위한 지 1개월 만에 제후들이 그를 죽이자 진왕조는 멸망하였다.<sup>7)</sup>

진시황이 활동하였던 춘추전국시대는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로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sup>8)</sup> 이러한 동인 가운데 하나가 철기의 보급이다. 철기 보급으로 생산력이 발달하고, 씨족 공동체 질서에서 해체되어 나온 많은 사람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자립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체제의 변화를 불러왔다. 정치체제에도 영향을 미쳐, 춘추 초기의 100여 개에서 180여 개 정도였던 제후 국가들이 전국 중엽에 이르러서는 10여 개로 줄고, 그 중에서 세력이 강한 일곱 나라로 재편되었다. 하지만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한 번의 전쟁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기록으로 전하는 당시의 전쟁 횟수만도 1200회가 넘는다.<sup>9)</sup> 춘추시대에는 한 번의 싸움으로 승패를 가르거나 혹은 자기 지역의 방위가 목적인 전투가 많았지만, 전국시대에는 영토를 넓히기 위한 전쟁으로 전쟁의 규모와 범위, 횟수가 확대되었다. 동주시대 즉, 춘추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백성들은 잦은 전쟁과 이를 위한 동원과 부역으로 심신이 지칠 때로 지쳐있었다. 누군가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켜 주길 원했다.

에 다른 음모는 없었는지도 알 수 없고, 사마천은 이러한 것을 참고해서 작성하지 않았을 까하는 생각도 지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보다 명확한 것을 밝히기까지, 기존의 관점에 의거해 논의를 지속하겠다.

7) 《史記·秦本紀》: 秦王政立二十六年, 初并天下爲三十六郡, 號爲始皇帝. 始皇帝五十一年而崩, 子胡亥立, 是爲二世皇帝. 三年, 諸侯並起叛秦, 趙高殺二世, 立子嬰. 子嬰立月餘, 諸侯誅之, 遂滅秦.

8) 金德三, 《中國道家史序說 I》(서울: 경인문화사), 2004, 57-58쪽.

9) 예를 들어, 노자, 묵자, 공자 중에 특히 공자가 활동하고 생활했던 기원전 551년에서 기원전 479년까지 약 70여 년 동안 각종 전쟁이 90여 차례 일어났다. 《墨子·非樂》은 “배고픈 자가 밥을 얻어먹을 수 없고, 추위에 떠는 자가 옷을 얻어 입을 수 없으며, 피곤에 지친 자가 쉴 수가 없었다(飢者不得食 寒者不得衣 勞者不得息)”고 당시를 묘사했다. 이러한 상황은 장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시대적 한탄은 《莊子》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맹자의 글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 《孟子·離婁上》의 “땅을 다투는 싸움에 죽은 자가 들판에 가득하며, 성을 다투는 싸움에 죽은 자들이 성에 가득하다(爭地以戰 殺人盈野 爭城以戰 殺人盈城)”는 글로 부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서북쪽 변방에서 힘을 키우던 진나라는 천하통일의 대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진효공 시절 상앙의 변법을 실시하고 실용주의적 정책을 실시하였다. 진나라는 기원전 230년부터 221년 동안 전국 7웅의 한(BC230), 조(BC228), 위(BC225), 초(BC223), 연(BC222), 제(BC221)를 차례로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하였다.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전국시대를 호령하며 수백 년을 割據해 온 여섯 나라를 멸망시켰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된 다민족적 전제주의 중앙집권제 국가를 탄생시켰다. 진시황은 다양하게 나뉘어져 존립했던 나라들과 그 나라들 사이의 대립과 전쟁, 그리고 이에 희생된 무고한 백성의 삶에 전쟁의 종식과 함께 안정과 평화라는 희망을 심었다.

## 2) 진시황에 대한 평가

짧은 시간에 여러 제후국을 물리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처럼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진시황에 대한 평가를 일반적인 견해를 포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가사상을 통치사상으로 법을 가르침의 주요 사상으로 삼아(以法爲教) 법률 인재 배양에 힘쓴 점이다. 이는 승상 이사(李斯)가 당시 천하가 이미 안정되어 법령이 통일되고, 백성들은 가정에서 농사에 힘쓰고, 선비들은 법령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익히고 있다고<sup>10)</sup> 진시황에게 아뢰며 사사(士)로 배운 것을 가지고 서로 법과 교화를 비난하고 있다고 하였다.<sup>11)</sup> 이로써 사학을 금지하고 만약 법으로 가르침을 삼으면, 관리를 스승으로 삼도록 하였다.<sup>12)</sup> 그러나 한(劉邦)은 진이 진시황의 가혹한 법률 정치로 인해 멸망한 것을 교훈 삼아, 유가를 통치사상으로 삼는다. 유방은 진나라의 가혹한 법령으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것을 알고 법령 세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없애려고 하였다.<sup>13)</sup>

10) 《史記·秦始皇本紀》：今天下已定，法令出一，百姓當家則力農工，士則學習法令辟禁。

11) 《史記·秦始皇本紀》：私學而相與非法教。

12) 《史記·李斯列傳》：若有欲學者，以吏爲師。

둘째, 《사기》에서 盧生과 侯生은 진시황이 포악하고 고집이 센 인물로 묘사되고 사마천 역시 진시황을 탐욕스럽고 속임수와 군력만을 내세우는 군주로 평가하고 있다.

시황은 천성이 포악하고 고집스레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이다. 제후의 출신으로 천하를 병합한 이후 득의양양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며, 예로부터 자기를 따를 만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한다.<sup>14)</sup>

진시황은 탐욕스럽고 비루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독단적인 지모만을 믿고 공신들을 신임하지 아니하고 士民을 멀리하였으며 왕도를 폐기하고 개인의 권위만을 내세워 시, 서와 고적을 금지시키고 잔혹한 형법을 집행하였으며 속임수와 권력만을 앞세우고 인의와 도덕을 뒷전에 방치한 채 포악함을 천하를 다스리는 선결 요건으로 삼았다.<sup>15)</sup>

진시황에게 6국의 통일 전략을 제시한 尉繚는 진시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秦王이란 사람은 얼굴이 콧등이 높고 눈이 길며, 사나운 짐승같은 가슴, 승냥이 같은 쉰 목소리와 은혜를 베푸는데 인색하고 호랑이와 이리 같은 흉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 자기가 어려울 때는 아랫 사람에게도 몸을 굽히나 자신의 뜻을 이루면 쉽게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 내가 평범한 백성에 지나지 않는 데도 나를 대할 때는 항상 나에게 몸을 낮추고 있다. 만약 진왕(秦王)이 천하를 얻게 되면 천하 사람은 모두 秦王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는 오래 사귄 사람이 아니다.<sup>16)</sup>

셋째, 진시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예를 들어 그의 카리스마나 뛰

13) 사람을 죽일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나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그 죄에 따라 판결할 것이다. 그 나머지 진나라 법령은 전부 없앨 것이다. 《漢書·古祖本紀》: 殺人者死, 傷人及盜抵罪. 餘悉除去秦法.

14) 《史記·秦始皇本紀》: 始皇爲人, 天性剛戾自用, 起諸侯, 并天下, 意得欲從, 以爲自古莫及己.

15) 《史記·秦始皇本紀》: 秦王懷貪鄙之心, 行自奮之智, 不信功臣, 不親士民, 廢王道, 立私權, 禁文書而酷刑法, 先詐力而後仁義, 以暴虐爲天下始.

16) 《史記·秦始皇本紀》: 秦王爲人, 蜂準, 長目, 擘鳥膺, 豺聲, 少恩而虎狼心, 居約易出人下, 得志亦輕人. 我布衣, 然見我常身自下我. 誠使秦王得志於天下, 天下皆爲虜矣. 不可與久游.

어난 지도력을 평가하는 것 등이다.

28년에 황제께서 처음으로 즉위하자 법도를 바로잡아 만물의 기준으로 삼고, 인사를 밝히시니 부자간이 화목하고 뛰어난 지혜와 인의로써 모든 도리를 분명히 드러내셨다.……의혹을 제거하고 법령을 제정하니 백성들이 모두 법으로 금지한 일을 피할 줄 알게 되었다. 지방 관리들의 직무가 나뉘어져 모든 정무의 시행이 용이해지고 모든 조치가 타당하여 바르지 않은 것이 없었다.<sup>17)</sup>

물론, 전국시대의 혼란스러운 분위기와 쟁명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통치자로서 진시황을 단면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전후 시대적 분위기를 참작해야 할 것이다. 진나라의 단명은 통일 이후 통일 주체였던 진시황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꾀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진시황의 통일을 이어 받거나 이를 지탱할 시스템의 미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물론 진시황은 영원한 삶을 꿈꾸기도 했지만, 국가를 이끌 시스템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래서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올바른 정책을 통해 시스템을 갖추려 노력하였다. 진시황이 통일한 영토는 郡縣制를 통해 관리되었다. 전국을 36개의 행정 단위인 郡으로 구분했고, 이 군들은 7500킬로미터가 넘는 도로망인 치도를 통해 수도와 연결되었다. 진시황이 이룬 일은 그 어떤 황제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 3. 진시황의 교육적 영향

#### 1) 사상 통일을 통한 교육사상의 통일

일반적으로 교육이란 인간의 가치를 높이려는 행위나 과정을 말한다. 이러

17) 《史記·秦始皇本紀》: 維二十八年, 皇帝作始, 端平法度, 萬物之紀, 以明人事, 合同父子, 聖智仁義, 顯白道理. ....朝夕不懈, 除疑定法, 咸知所辟, 方伯分職, 諸治經易.

한 교육은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교재를 이용해 교수하는 것, 피교육자 스스로 자기교육을 하는 것,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피교육자를 인간관계 안에서 상호 교육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와 국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현대 교육은 학교, 가정, 사회에서 이루어지기에 국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실 국가의 영향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진시황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교육에 영향을 미친 것은 대부분 그가 황제로서 행한 치적과 직결된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은 국가의 정책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역사적으로 교육과 정치는 상당히 오랫동안 서로 구속되었다. 추구하는 정치체계가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정치는 교육에 그 영향력을 행사했고 교육은 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중국의 역사에서 특히 진은 이러한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진은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전 207년까지 단명한 왕조이다. 하지만 진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집권제와 군현제를 시행하였다. 진대의 분봉제 폐지, 문자 통일, 도량형 통일, 법령의 통일은 진왕조를 공고히 하는 제도가 되었으며 이후 이러한 진의 중앙집권제도는 봉건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진시황은 여불위가 숭상한 도가와 황로 사상을 배척하고 법가사상을 수용하면서 사상을 통일하였다. 이로 인해 진대에는 주로 법가사상을 숭상하였다. 진시황의 정책입안자였던 이사는 荀子の 제자였다. 기원전 231년 진시황 34년에 이사의 제안에 근거하여 유가를 탄압하여 유생을 생매장하고, 시중에 유통되던 《시경》, 《서경》을 비롯하여 일반 제자백가의 서적을 불태워 제거한 焚書坑儒를 단행하였다. 진시황을 평가할 때 이러한 분서갱유의 결과에 천착하여 진시황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진시황이 분서갱유를 단행하게 된 원인, 과정 등을 먼저 살펴보고 진시황에 대해 재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신이 청하옵건데 모든 문학과 《시경》, 《서경》 제자백가의 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것을 없애도록 하고 이 금지령을 내린 지 30일이 지나도 없애지 않는 자는 黥刑을 내리어 城旦刑에 처하십시오. 다만 의약, 점복, 種樹에 관한 책은 없

애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관리를 스승으로 삼게 하옵소서.<sup>18)</sup>

진시황은 이사의 건의로 분서갱유를 단행했지만 진시황이 예약을 제정하고 박사를 중시하여 박사가 소지한 책과 의약, 점복, 종수와 관계된 서적을 불태우지 않은 것은 오로지 법가만을 숭상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坑儒한 사람 대부분이 方士와 術士였고 학식 있는 선비는 추방하여 학술전문관리로 삼아 정책을 논의케 하고 겸하여 당시의 혼란한 학술사상을 정리하게 했다는 任時先의 견해처럼<sup>19)</sup> 모든 유생을 매장했다고 보기 어렵다.

선진이후 漢代에 武帝는 ‘백가를 축출하고 유가만을 숭상하는(罷黜百家, 獨存儒術)’ 정책을 실시한 것처럼 진시황이 분서갱유를 통해 법가를 숭상한 것은 이 시대만의 특수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선진시대에도 분서를 볼 수 있다. 분서는 적국을 물리친 후 통치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행해졌다. 예를 들면 《孟子·萬章下》에 “제후들은 자신을 해칠 것으로 보아 이를 싫어하여 典籍을 모두 없앴다”고<sup>20)</sup> 하였다. 분서갱유는 교육에 있어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많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사상과 학술을 정리한 진시황은 私學을 금지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고대문헌과 학술전수 면에서 큰 손실을 초래했으며 학술문화가 침체되었다.

옛날에 천하가 흩어지고 어지러워도 아무도 이를 통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후들이 나란히 일어났고 말하는 것마다 옛 것을 끌어내어 지금의 것을 해롭게 하고, 헛된 말을 꾸며서 실재를 어지럽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학에서 배운 것이 옳다고 여기고 조정에서 세운 제도를 비난하였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천하를 통일하고 흑백을 가려 천하에 오직 하나만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학에서는 서로 모여 이미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허망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칙이 내려졌다는 말을 들으면 각자 사학에서 배운 것을 옳다고 여기고 들어가

18) 《史記·李斯列傳》: 臣請諸有文學詩書百家語者, 燔除去之. 令到滿三十日弗去, 黔爲城旦. 所不去者, 醫藥筍箠種樹之書. 若有欲學者, 以吏爲師.

19) 任時先著, 車錫基譯, 《中國教育思想史》(서울: 教學研究史), 1989, 112쪽.

20) 《孟子·萬章下》: 諸侯惡其害己也, 而皆去其籍.

서는 마음속으로 그르다고 하며 밖으로 나와 향간에 옳다고 떠듭니다. 그들은 군주를 비방하는 것을 명예로 여기고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고상한 것으로 여겨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어 비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이 금지하지 않으면 위로는 군주의 권위가 떨어지고 아래로는 당파가 이루어질 테니 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sup>21)</sup>

이사는 정치 혼란의 폐단을 분석했다. 그는 사학의 붕기와 백가쟁명이 천하 분열과 제후 분쟁 시기의 산물로 생각했다. 이렇게 진시황은 이사의 건의로 사학을 금지하고 많은 학문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뜻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립하였다. 그는 법가사상을 받아들여 ‘법으로 가르치고, 관리를 스승으로 삼을 것(以法爲教, 以吏爲師)’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교육정책을 확립하고 법령을 교육내용으로 삼았다. 이러한 정책을 숭상한 교육은 비록 짧은 시간 효과는 있었지만 지속될 수는 없었다.

진시황의 이러한 통일 작업은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경제의 발전과 교육의 발전은 상관성이 크다. 개인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양질의 교육은 경제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좋은 교육 환경을 가지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지기 때문이다. 전국시기 제나라의 직하도 경제적 여유 속에 稷下學宮을 열 수 있었던 것이고, 현재 미국의 실리콘 벨리와 아이비리그 대학도 경제적 여유와 교육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진시황이 행한 다양한 통일 작업은 경제적 환경을 좋게 만들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 발전에 긍정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同軌’를 보면, 이것은 바퀴 폭의 통일로서 전국시기 각 나라는 도로의 폭이 다 달랐기에 바퀴의 폭도 지역에 따라 달랐다. 진시황의 동궐을 통해 한 나라의 수레를 다른 나라에서 바퀴 탈 필요가 없이 한대의 수레로 전국에서 탈 수 있었다.

여기에 ‘馳道’를 만들어 교통을 원활하게 하였다. 당연히 강압적으로 이루어

21) 《史記·李斯列傳》：古者天下散亂，莫能相一，是以諸侯並作，語皆道古以害今，飾虛言以亂實。人善其所私學，以非上所建立。今陛下並有天下，辨黑白而定一尊，而私學乃相與非法教之制，聞令下，即各以其私學議之，入則心非，出則巷議，非主以爲名，異趣以爲高，率群下以造謗。如此不禁，則主勢降乎上，黨與成乎下，禁之便。

진 치도의 건설로 인한 부작용은 컸다. 그러나 이를 통해 지역 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후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교류의 편리성을 유도한 것은 지식의 유통과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바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 정보와 교육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는 우리가 더 잘 경험하고 있다.

## 2) 문자의 통일을 통한 교재 개발

문자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문자의 통일은 지식의 축적과 전파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확장을 지원한다.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유산으로 남길 것에 대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공간적으로는 각 나라별로 다양한 글자와 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소시킨다.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전국시대에는 나라별로 다양한 글자가 존립했다. 예를 들어 비교적 간단한 글자인 ‘馬’의 경우도 글자가 6가지 형태였고, ‘安’은 8가지 정도로 달랐다. 진시황은 통일 후 진나라에 통용되던 小篆體를 표준으로 정하여, ‘書同文’ 즉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켰다.

문자 통일은 국토 통일에 버금가는 중요한 일이다. 전국시기 제후국은 문자가 서로 달랐다. 심지어 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문자도 복잡하여 문자로 교류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당시 문자의 통일은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전달하여 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문자의 통일은 전국 어디에서나 의사소통이 수월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토의 통일은 외형적이지만, 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 것은 바로 내적인 통일로서 문자의 통일이다. 이를 통해 내적인 결속력과 문화적 일체감을 이뤄 외형적 통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진시황이 죽고 진나라가 멸망함으로 진시황의 문자 통일은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경험은 이후 중국에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록 강압적으로 문자의 통일을 이루었지만 긍정적 영향과 효과를 일으켰다.

진대의 문자는 비록 몇 종류의 자체가 있었지만 복잡한 것을 간략화하고 어려운 것은 쉽게 하였다. 문자를 통일함에 따라 소전은 통일 후 진나라의 통용 문자가 되었다. 小篆의 출현과 사용은 학술문화를 보급하고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당시 소전체를 중심으로 몽학교재가 나왔다. 예를 들면 李斯의 《蒼頡篇》, 趙高的《愛歷篇》, 胡毋敬의《博學篇》 등이다. 이러한 교재는 당시 글자를 익히는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후에 소전체의 불편함을 보완하여 隸書體로 개선하기도 했다. 예서체는 王次仲이 창제한 것을 영정의 명으로 程邈이 보완하여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원래의 구부러진 글자를 곧고 간단하며 규범적인 것으로 수정하여 널리 사용되었다.

진대의 문자개혁은 중국교육사에 있어 중요하다. 문자의 통일은 政令을 통일하는데 유리하였고 하급관리와 백성들이 이해하고 시행하는데 편리했으며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중앙집권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일조하였다. 이렇게 통일과 표준화 작업은 교육이 가르치고 배우는데 있어 본질에 충실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지식의 교류와 축적 및 새로운 창조가 나타날 수 있다. 제도와 장치의 정비 없이 혼란과 혼용만 범람한다면 교육과 학문은 그 본연의 임무와 목적에서 벗어나 혼란스럽고 소비적인 활동만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시황의 업적이 교육에 미친 영향은 전면적이다. 폭군의 이미지가 강한 진시황의 이러한 작업이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철학과 계획에 의해 진행되었고, 당시 시대적 요구에 부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에 맞게 인재 기용 정책을 펼쳤다. 물론 기용 정책도 과거와 달리 파격적이었다. 인재의 등용은 일반 백성들의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교육의 목표가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육은 안정된 직업과 생활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진시황은 천하통일은 물론이고 통일 후 戒狄을 물리치거나 장성을 축조한 몽염 장군을 기용하고, 이사와 위료와 같은 인물을 등용하여 통일 국가를 이루는데 앞장 설 수 있었다.

둘째, 통일된 사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진시황은 자신이 생각하는 학문과

철학을 굳건히 세우고자 하였다. 먼저 통치사상과 이념으로서 법가이다. 진시황이 만나고 싶어 했던 한비자나 그의 재상 이사는 바로 법가 사람이다. 진시황은 법가를 통해 국가의 기강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비록 진시황의 진나라는 단명했지만, 그가 만든 제도와 틀은 중국 역사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 진시황은 그 어떤 교육가보다 교육과 교육문화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陰陽家の 五德終始說을 기초로 통치의 신학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오덕종시설은 당시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규칙으로서 이를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 통일의 명분과 정당성을 획득하려 한 것이다. 오덕종시설이나 음양오행은 중국의 오랜 전통으로 음양의 상관적 사유에 기초하지만, 문제는 이것의 지나친 확대와 해석에 있다. 오덕종시설에 따르면 진은 水德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색은 黑, 수는 六이 된다. 그래서 진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것들에 검은 색과 숫자 육을 사용하였다. 음의 기운을 가진 수의 시대이기에 진은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진시황의 교육에 미친 영향은 결국 그의 정책이 교육에 미친 영향이다. 여기서 발견되는 특징은 바로 전국시대의 국토나 사회 문화 관습 등에서 서로 다른 것들의 혼재를 자신만의 방식과 틀로 통일하여 정리한 것이다. 진시황은 국토를 비롯하여 문자, 도량형, 사상, 학문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던 것을 진나라를 중심으로 통일하고 정리하였다. 물론 사상적 기저에는 진나라에서 중시했던 법가의 사상이 자리하고 있다. 그 가운데 ‘법으로 가르침을 삼는 것(以法爲教)’은 혼란과 무질서를 정리하여 주기는 했지만, 이것이 지나쳐 분서갱유와 같은 무리수를 저지르기도 했고, 陳勝·吳廣의 난과 같은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여기서 바로 진시황의 오판을 지적할 수 있다. 법가와 수덕으로 엄격하게 행한 통치는 통치가 아니라 심판이었다. 그는 통일 군주다. 한고조 유방은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하여 설마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居馬上得之, 寧可以馬上治之乎)”라는<sup>22)</sup> 신하 陸賈의 충고를 수용해

22) 《史記·酈生陸賈列傳》, 《漢書·酈陸朱劉叔孫傳》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한서》에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진시황도 천하를 통일한 통치자로서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엄격한 심판을 할 것이 아니라, 민심과 국정을 조화롭게 조종했어야 했다. 천하를 얻었지만 천하를 심판하려 했지 다스리려고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진을 이은 한왕조가 진의 가혹한 법률과 제도를 폐하고 法三章을 약속한 것이나, 한대 초기 시행한 黃老 사상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오랜 전란과 혼란 속에 지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과 안정이었고, 통치자는 엄격한 잣대를 휘두르는 심판자가 아닌 험벗고 상처받은 백성을 보살피는 통치자가 되었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시황의 통일 작업과 정리는 소모적인 논쟁과 불필요한 소비를 막고 각자의 분야에서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했다. 이러한 것을 통해 학문과 기술 등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여 교육에 영향을 미친 점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진의 몰락으로 이러한 노력은 진의 뒤를 이은 한나라 초기에 열매 맺는다.

#### 4. 反面教師로서의 진시황

앞서 제시한 진시황의 업적은 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업적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 주요 원인은 결국 통일 이후 진시황의 불안한 정치와 사망, 그를 이은 2세 황제의 무능 등에 있다. 여기서 굳이 진시황의 폭정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의 폭정이 과연 어떤 관점에서 폭정이라고 말해야 할 지 고민이 들어서다. 오랜 역사 속에 펼쳐진 권력자들의 폭정도 고려하고, 전국 7웅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멸하고 통일했을 때 이에 대한 저항과 잔존 세력의 통제라는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시스템적으로 통일된 형태를 만든 진시황은 자신의

---

는 '之'자가 없다.

세대에 그 효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후 이어진 왕조와 중국의 장구한 역사 속에 커다란 영향을 남겼음을 간과할 수 없다. 진시황의 진정한 교육적 효과는 그가 행한 정치적 행위와 업적보다 그가 죽은 뒤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반면교사가 되는 그의 삶에 있는지도 모른다.

진시황의 평가는 통일 과업을 완수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통일 이전의 진시황은 비교적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였다. 그는 통일을 위해, 자신의 일에 철저히 하여 매일 공문서를 120근 정도 처리하였다. 또한 명분이나 체면에 얽매이지도 않았고, 인재도 소중히 여겼다. 이것은 그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통일을 이루고 난 뒤, 통일 뒤에 오는 저항, 잔존세력의 전복 위협, 목표 완성후의 안일함, 수차례 벌어진 암살에 대한 공포<sup>23)</sup> 등으로 통일 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진시황은 많은 사람을 의심하고, 아부와 아침에 귀를 기울이며 점차 독단으로 빠져든다. 그가 행한 형벌이 중국의 통일과 통일 왕국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기보다 자신의 위엄과 사사로운 생각에 사용되어 문제를 일으켰다.

진시황의 삶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성공을 한 뒤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진시황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는지 모른다. 어쩌면 이러한 면이 진시황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큰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진시황의 삶은 피교육자 스스로 자기교육을 하거나, 인간관계 안에서 상호 교육을 하는데, 혹은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교재를 이용해 교수하는 데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재료이다. 이에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시황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신념과 노력은 배워야 한다. 앞의 글에서도 보았듯이 진시황이 지니고 있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확고한 목표와 신념,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실천을 들 수 있다. 뒤스하오는 이런 것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진시황을 평가하였다. “진시황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천하

23) 진시황을 암살하려던 자객으로는 荊軻와 형가의 친구 高漸離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史記·刺客列傳》에서도 언급된다.

통일이라는 평생의 꿈을 이루기 전까지 단 한 순간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갔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진시황은 감정보다는 이성을 우선시했고, 그 결과 천하를 자신의 발아래 두는 데 성공했다.”<sup>24)</sup>

둘째, 진시황의 리더십은 배워야 한다. 진시황이 통치자로서 차별 없는 인재의 등용을 시행한 것도 중요하다. 결국 진시황의 장점은 그의 리더십에서 발휘되는데, 그 리더십의 기초는 인재를 제대로 기용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것에 있다. 인재등용에 있어서 진시황은 그 이전인 진목공 때부터 실시한 ‘4불문’이라는 정책을 펼쳤다. 바로 국적, 신분, 민족,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전통으로 등용한 인재로는 몽오, 환기, 양단화, 왕전, 왕분, 여불위, 이사, 몽염 등이 있다. 百里奚, 상양, 張儀, 范雎, 여불위 등은 모두 진나라 사람이 아닌 인물로 진의 승상을 지냈다. “진시황은 그의 계책을 받아들였다. 위료를 보면 예의를 갖췄고, 옷과 음식도 위료와 대등하게 했다.”<sup>25)</sup> 하였다. 이러한 것을 통해 진시황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위료도 “내가 보잘 것 없는 사람인데 내게 늘 겸손하게 대하였다.”<sup>26)</sup> 하였다.

셋째, 진시황의 지나친 주관적 판단과 행동은 경계해야 한다. 이것은 확고한 목표와 신념 등이 지나칠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특히 진시황의 경우 통일을 이룬 이후에 이러한 점이 부각되어 나타났는데, 목표를 이루고 난 이후에 자기세계의 독단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후세에 교훈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진시황은 부족했다.

넷째, 가혹한 형벌과 통치는 경계해야 한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 가혹한 형벌로 통치하거나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무력과 폭력을 행하였다. 그 결과 신하들은 죄를 지을까 몸을 사렸고, 누구도 감히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였다. 그가 죽은 뒤 그의 자리를 탐낸 신하와 2세 황제에 의해

24) 위스하오, 앞의 책, 120쪽.

25) 《史記·秦始皇本紀》: 秦王從其計。見尉繚亢禮。衣服食飲與繚同。

26) 《史記·秦始皇本紀》: 我布衣 然見我當身自下我。

만들어진 指鹿爲馬라는 고사는 진시황 생전에도 비슷하게 벌어졌고, 그의 아들은 진시황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운 것임을 방증하고 있다.

다섯째, 과도한 낭비는 경계해야 한다. 현대인의 삶에도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서 진시황의 과도한 낭비는 경계해야 한다. 진시황은 대규모 순방에 나서 명산과 승지에 자신의 공을 새긴 기념비를 세워 자신의 위업과 명성을 천하에 떨치고자 하였다. 또한 불로장생약을 구하기 위해 재력과 인력을 낭비하여, 백성의 고통이 늘어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도한 낭비는 멸망으로 가는 첩경임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착취는 백성들의 반항을 불러왔고, 정벌한 국가의 기득권 세력이 진나라에 반대하는 활동에 명분을 제공했다. 이러한 착취와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사기》에는 당시 진나라의 위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법을 사용함에 점점 각박해졌다(用法益刻深)”, “수자리에 사는 진승 등이 옛날 형에서 반란을 하여 이름을 장초라고 했다(戊卒陳勝等反故荆地, 爲張楚).” 마침내 기원전 209년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王侯將相寧有種乎)”라며 봉기한 진승과 오광이 이끄는 농민봉기가 일었고, 진의 멸망을 촉진했다.

여섯째, 易地思之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시황은 전쟁과 전란에 지친 백성에게 통일을 통해 안정의 희망을 주었다. 통일을 이룬 뒤 백성에 대한 호칭을 ‘黔首’로 통일하였다. 지배자인 진나라가 초나라, 제나라, 연나라 사람이라고 구분하거나, 신분제를 두어 차별하거나,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구분을 엄격히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백성을 검수라고 칭하였다. 물론 진나라 사람과 구별하여 新黔首라는 구별을 하기도 했다. 미시적으로 보면 이 또한 차별이 될 것이지만, 과거 혹은 이후의 정복 왕조와 비교하여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정복 개념이 아닌, 통일로서 하나로 품는 형태이다. 확대해석하자면 백성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진시황 개인에게만 집중되었고, 주변부의 반성과 희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중심의 반성과 희생은 없었다는 점에 있다. 결국 진의 패망이나 진시황이 이룬 업적의 디스카운트는 중심의 상응하는 반성과 희생이 결여된 것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천하의 백성을 생각하여 평등하게 대했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로 그들

의 삶과 생계에도 풍요와 휴식을 주었어야 했다. 예를 들어 자신만을 위해 대규모 공사를 강행하고, 이를 위해 검수의 노동력과 물자를 차출하는 것은 춘추 전국시기에 국왕의 욕망을 위해 전쟁에 희생된 백성들의 삶과 다를 바 없다. 성공한 황제와 왕조를 만들기 원했다면, 명칭만 검수로 통일할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백성들의 바람을 읽어 행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지금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진의 단명과 진시황의 통일 업적이 물거품이 된 것은 진시황의 폭정에 있기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이유가 있다. 이것을 삼중증 거법처럼 합리적 추론과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생각하면 첫째, 진시황의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 둘째, 갑작스러운 죽음을 자신의 이익에 이용한 조고와 승상 이사의 농단.<sup>27)</sup> 셋째, 조고에 의해 왕위에 오른 호해의 무능과 폭정. 넷째, 통일을 이루고 난 뒤,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제후국과 그 나라의 기득권 세력 등이 만드는 저항. 다섯째, 통일 과업에서 오는 피로감의 축적과 이에 대한 반작용 등이다. 이런 것들은 매우 많은 힘이 들어가는 (가시적 비가시적인 면에서의)통일에서 오는 반작용을 이길 시스템미비와 통일주체의 부재를 초래했다.

진시황의 업적은 가시적·비가시적인 것을 망라한 통일에 있고, 여기에 교육적으로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 그의 많은 업적은 결국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만들고, 이에 기초하여 다양한 제도와 도량형 및 문자 등을 통일한 것에 집중된다. 어떤 측면에서 진시황이 영토의 통일을 이루고 강력한 법가적 사상으로 문자, 도량형, 화폐 등의 통일을 추진하지 못했다면 한제국의 건설이나 오늘날의 중국은 존재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럽처럼 다양한 나라들이 존립한 상태로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통일을 이루는 것은 통일을 지속하는 것보다 쉬울지 모른다. 저마다의 이유와 사연이 있기에 기존의 경로를 깨트리고 새로운 것을 제시할 때는 반발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물리치고 그가 행한 통일 작업은 다양한 문제

27) 예를 들어 만아들 부소와 몽염 장군 등을 자결하게 한 것을 들 수 있다.

를 발생시켰지만, 분열된 국가에서의 오랜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후 중국의 발전에 토대를 쌓았다.

## 5. 나오는 말

이상으로 진시황의 삶과 평가, 교육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진시황의 긍정적 측면을 밝히고, 이것의 교육적 가치와 의의를 역설하였다. 비록 진대의 교육과 학술사상을 논하는 것은 다른 시대보다 사료가 부족하고 사학의 금지로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만 중앙집권제로 법령을 숭상하고 통일 국가를 이룬 것은 후세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최고 통치자로서 그가 교육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물론 그 영향은 단명한 진나라보다 후세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 중국 고대사를 구분할 때 흔히 선진과 선진이후로 구분하는 것도 바로 진의 영향력이 이후에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정치와 교육, 권력과 교육, 사회와 교육의 관계까지도 생각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진시황의 다양한 통일 과업은 그동안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동안 이질적으로 변한 문화를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 일치시키고, 최초의 통일을 통해 중국이 통일된 공동체로 통일 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각 민족과 백성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현대 정치에서도 공자의 和而不同을 기치로 중국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하는 심리적 지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적, 민족적 반통일적 형태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통일을 이룬 진시황은 이를 좋게 마무리하지 못했다. 그 주요한 원인은 바로 서로 다른 것의 조화를 이루어 내지 못한 것에 있다. 공자가 同而不和보다 화이부동을 더 높이 평가하며, 대동사회를 화이부동에서 언급한 것도 옛 사람들이 음약을 중시한 것도

서로 다른 소리의 불협화음이 아닌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조화가 중요했기 때문이다.<sup>28)</sup>

중국 역사를 보면<sup>29)</sup> 주변의 문화와 국가를 품어 조화롭게 만들어 저력을 발휘했다. 중국의 핵심 가치는 흡인력 속에 내재된 탄성과 포용력이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동력은 바로 '개방과 포용'이다. 당대의 개방된 천하의 질서는 포용성과 탄성을 갖췄다.<sup>30)</sup> 진시황은 그의 장점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국토의 통일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내면적 통일을 이루고, 통일 중국이라는 것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통일을 이룬 이후 조화, 그리고 그 동력인 개방과 포용의 정신을 실천했다라면 그렇게 빨리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진시황의 삶은 후세 사람들에게 반면교사가 되며 그 자체로 많은 교육적 가치를 전하고 있다. 본문에서 보았듯이 천하를 통일한 그가 행하고 이룩한 업적은 교육 방면에도 발전과 도약의 기틀을 제공하였고, 과장되어 표현한다면 이어지는 현대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濼觴으로 존재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교육과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인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이들의 주장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모두의 요구를 만족시킬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시황의 교훈은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중국에게, 주변국과의 마찰을 서슴지 않는 중국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와 우리사회에게도 공멸하지 않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28) 조화를 강조한 것은 중국 사상의 특징이다. 《周易》을 비롯하여 도가류의 책들까지 조화를 강조했다. 중국 사상에서는 이상적 세계, 서구에서 말하는 이데아나 천상세계가 현실에서 구현되기 어려움을 간파하고 있었다. 현세는 온갖 음과 양의 것들이 혼란스럽게 존재할 뿐이고, 이러한 현실세계에서 이상적인 형태는 존재하는 것들의 조화였다. 그래서 《老子》에서 언급한 “相反相成”도 반대되는 것들의 대립이 아닌, 반대되는 것들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것이 탄생에 주목한 것이다. 긴 것과 짧은 것이 대립하지만, 조화를 이루어 길이를 만들고, 높은 것과 낮은 것도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하여 높이를 만드는 식이다.

29) 특히 북방 유목민족과 이들에 의해 세워진 국가를 제외하고 한족을 중심으로 본 경우이다.

30) 許倬雲, 《說中國》(廣西: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7, 110쪽.

## &lt; 參考文獻 &gt;

- [漢]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82.
- [漢] 班固: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62.
- 김경호, <秦 始皇帝의 死亡 및 秦의 滅亡과 관련한 또 다른 문헌 —北京大學藏西漢竹書 (參) 趙正書譯註考—>, 《中國古中世史研究》, 2017.
- 金德三, 《中國道家史序說 I》, 서울: 경인문화사, 2004, 57-58쪽.
- 毛禮銳 沈灌群 主編, 《中國教育通史》第2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6.
- 楊寬, 《戰國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8.
- 田正平商麗浩主編, 《中國高等教育百年史論》,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6.
- 俞啓定, 《先秦兩漢儒家教育》, 濟南: 齊魯書社, 1987.
- 王炳照, 閻國華 主編, 《中國教育思想通史》第2卷,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1994.
- 熊承滌主編, 《秦漢教育論著選》,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987.
- 李國鈞, 《中國教育制度通史》(第六卷), 山東: 山東教育出版社, 2000.
- 任時先著, 車錫基譯, 《中國教育思想史》, 서울: 教學研究史, 1989.
- 陳學恂, 《中國教育史研究》(秦漢魏晉南北朝分卷),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9.
- 許倬雲, 《說中國》, 廣西: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7.
- 黃濟 著, 김귀성 · 이경자 역, 《중국 전통교육철학의 이해》, 서울: 원미사, 2013년.
- 뤼스하오, 《진시황: 신화가 된 역사 그리고 진실》, 서울: 지식갤러리, 2015.

## &lt; Abstract &gt;

## An Educational Review of the Qin Shi Huang

Kim, Dugsam · Lee, Kyungj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ducational values and significance of Qin Shi-Huang based on his life and achievements. In doing so, we will look at the educational value of Qin Shi-Huang, who was excluded from the educational perspective, and contribute to broadening the horizon of

Chinese education studi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first looked at the life of Qin Shi-Huang. The researchers looked at the life of Qin Shi-hwang in an objective and realistic way, trying to clearly understand his mistake. There are many new discoveries in Qin Shi-Huang as a historical character from a balanced perspective, away from the negative view of Qin Shi-hwang. In this regard, it was intended to derive the educational impact and value of Qin Shi-Huang. Qin Shi-Huang, who unified China, unified not only national territory but also laws, institutions, and text messages. This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education and great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later China. The study noted that, thousands of years later, Qin Shi-hwang was inspired to be spoken in many people's mouths, while educational significance was felt through life as a teacher. Therefore, we wanted to see what he could learn not only from his strengths but also from his weaknesses. As this study shows, the assessment of the Qin Shi-hwang is skewed. Based on the achievements and influences of Qin Shi-Huang, we need to inherit his strengths and watch out for faults. Through these studies, we look forward to an educational reassessment of Qin Shi-Huang in the future.

Key words: Qin Shi-Huang, Education, China Education, National education policy, Reassessment.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02.09	2019.02.13	2019.02.27	2019.03.02	2019.03.31